

# 개산조 태허 스님 사상집중 조명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 을 중무계획·주요 사업

관음종은 개산조 태허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관음종에 바탕을 두면서 종단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음종은 올 한해 태허 대종사 기념사업을 포함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지역포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으로부터 관음종의 올해 중무계획과 주요 사업에 대해 들었다.

### ▶올해 주요 중무계획은.

지난해 관음종은 종단의 내적 역량을 착실히 쌓았다. 총본산 묘각사 복원 불사를 마무리했고 종단의 최고 어른인 정종에 죽산 스님을 추대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했다. 그러나 한국불교계에서 큰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올해는 이 부족한 점을 채우는 해로 삼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종단 살림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개산조인 태허 홍선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펼쳐면서 8백여 사찰과 종단의 역량을 이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여 사찰로 구성되어 있는 재단법인을 보다 확대시킬 계획이다.

▶개산조인 태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태허 홍선 대종사는 50~60년대 분란에 휩싸여 국민을 도의시켰던 한국불교의 새로운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불법홍포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관음종의 전신인 일승 불교현정회(一乘佛敎顯正會)를 창립했다. 태허 스님은 법화경의 보살실천사상에서 해답을 찾았다. 종교적 양심과 대승적 이념으로 지은보은(知恩報恩)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기념사업의 기조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종단이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총회 의원과 총무원 집행부, 주요 사

찰 주지 등으로 사업을 주관할 기념사업회를 1월 5일 구성해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구상중인 사업을 소개하자면, 총본산 묘각사에 장종 연혁비를 건립하고 자필 원고와 법문을 모아 범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와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하여 태허 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올해 소속 사찰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한 올해부터는 30~40여 사찰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해 나갈 것이다.

▶현재 당면한 종단 현안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오랜 기간 불교·환경·시민 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던 북한산 관동도로가 강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북한산 관동' 반대운동에 조계종이 중심에 있었지만,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는 조계종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찰이 조계종보다도 다른 종단에 더 많다.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찰에는 관음종 소속 사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 사찰은 뚜렷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재개가 이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관음종 중앙총회에서 북한산관동도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조계종 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에 북한산 관동반대 운동에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간 협의가 이뤄지지

## 탄신 100주년 맞아 연혁비·범어집 발간 지역 사찰 40곳 사회활동 지원·조직화

사찰의 활동영역이 사찰 밖으로 넓어진다.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사찰의 활동은 종단의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종단의 힘이 소속 사찰의 역할과 활동에서 나온다 그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종단 소속 사찰 대부분이 교도소 교화활동이나 불우이웃 후원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종단의 힘으로 모이지 못했다. 산발적·개별적으로 이뤄져왔고 일정한 계획 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단은 지역사찰의 활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시키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찰이 조계종보다도 다른 종단에 더 많다.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찰에는 관음종 소속 사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 사찰은 뚜렷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재개가 이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관음종 중앙총회에서 북한산관동도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조계종 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에 북한산 관동반대 운동에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조계종의 양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서울의 허파와도 같은 북한산을, 즉 미래의 희망을 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불교 발전을 위해 관음종이 해나갈 역할은.

태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사업과 더불어 올해 종단 역량을 집중할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다. 불교의 사회참여는 복지사업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우리 종단은 산하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을 두고 용두2동 어린이집 등 3개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종단과 역할에 비하면 아직 지원수준에 불과하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복지원에 5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총본산 묘각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해 누구나 묘각사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시민선당을 개원할 계획이다. 관음종은 이같은 활동을 통해 한국불교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박봉영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 진각종 전통등 제작 교육

진각종 문화사회부에서 주최하는 '전통등 제작 우수재원 양성교육'이 1월 26일 시작돼 2월 20일까지 서울 하월곡동 탑주심인당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기본과정(1월 26일~2월 8일)과 심화과정(2월 9일~20일)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 기본과정은 청년회원과 관련학과 전공 참여희망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통등 제작법에 대한 강의와 실수로 진행됐다. 2단계 심화 과정에서는 대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 총지종 종조탄신 97돌 법회 봉행

총지종(총리원장 법공)은 1월 29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종조인 원정 대종사의 탄신 97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었다. 총지사에서 열린 기념불사에서 수성 종령은 "활저한 수행과 계행을 통해 자내증을 확립하여 종조의 교상과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총지종은 종조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원정 대종사의 유품과 서적 등을 총지사내 종조전에 전시하고 있다.

### 종단소식

#### 말사 신도간부 교육

천태종은 2월 21~22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전국 말사 신도간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도간부들의 올바른 신앙관 정립과 원만한 신도회 운영을 위해 열린다.

천태종은 지난해 12월 중앙신도회와 전국 말사 신도회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 위덕대 증비장학생 선발

진각종은 위덕대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할 증비장학생을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입생의 경우 우 고교 3학년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위덕대 3학년 학생은 전 과목 B플러스 이상이

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증비장학생에게는 수행과 성적의 정도에 따라 박사과정까지 학비와 생활비 등이 지원된다. 또 일선 심인당이나 진각종 산하기관에서 교화활동에 나설 수 있다. (02)913-0751~3

#### 중국 관음성지 순례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상해 용화사, 항주 영은사, 보타산 보타사, 보제사, 낙가산 낙가사 등지를 참배한다. 총무원장 남정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간부 스님과 불자들이 순례에 동참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2월 14일까지 마쳐야 참가가 가능하다. (031)592-8891

## '부처님 열반절' 행사 양력 2월 15일

### 진각종, 현대 생활패턴 맞춰

진각종은 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탑주심인당을 비롯해 국내외의 모든 심인당에서 부처님 열반절 불사를 봉행한다. 이날 불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일을 맞아 법신 비로자나불의 자비행을 기리고 불국토 건설을 위해 웅맹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다.

음력 2월 15일을 열반절로 삼고 있는 다른 종단과 달리 진각종은 양력으로 기산해 불사를 행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낮은 불

교를 버리고 현대 사회에 맞는 생활불교를 해야 한다'는 종조 회당 대종사의 장중정신이 깃들어 있다. 한국사회가 양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불사도 양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신교도들의 신행간격을 이루는 자성일(일요일) 불사도 양력에 기준을 두고 있다. '법신불은 태양 같고 화신불은 달 같다. 그러므로 일요일은 비로자나불일'이라는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현대생활 패턴에 맞춰 주(週)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 "동방불교대 나와야 태고종 스님 된다"

### '선교육 후득도 제도' 올 시행

앞으로 태고종 스님이 되려면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승가과를 졸업해야만 한다.

태고종은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올해 배출되는 28기 합동득도 행사부터 적용한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동방불교대에 2년 과정의 승가과를 개설했으며 강사진을 대폭 강화했다.

동방불교대 승가과는 초발심자경론, 사미율의, 치문, 선요 등 내전 과목과 불교화개론, 비교종교 등의 교양 과목, 참선, 염불선, 위빠사나 등의 수행 과목, 포교원리, 포교방법론, 중무행

정 등 교화 과목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태고종의 기존 득도제도는 6개월 이상 행사 생활을 하고 종단에서 주최하는 합동득도수계산림에서 사미(나)계를 받은 뒤 한차례의 연수를 참가하면 승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득도제도는 행사 생활과 합동득도수계산림, 동방불교대학 승가과를 모두 이수해야 승적 취득이 가능하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선교육 후득도 제도가 정착되면 스님들의 자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승가위상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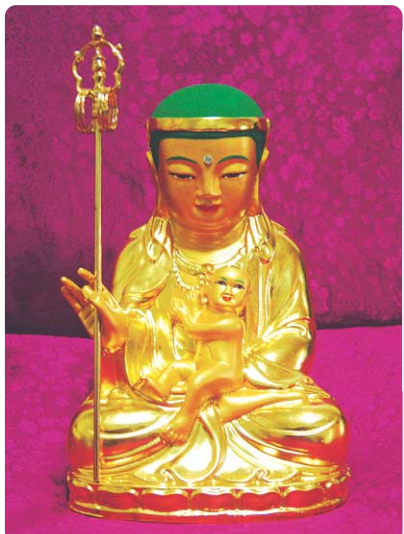
박봉영 기자

##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3월 8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내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태중아기 지장보살님

- 일 시 : 2004년 3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음, 2월 18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3월 8일 (음, 2월 18일)
- 기도회(막재) : 양력 4월 19일 (음, 3월 1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회당 별도
  - \* 위패비, 아기웃 :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 7세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복을 합니다. (베네치안,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사들 시는게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상에 드린듯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태중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양장 02)3391-8523 / 011-9002-8523

## 평불협 창립 12돌 기념 및 통일법당 개원법회 행

불교계 평화통일과 남북불교교류의 선구 역할을 해 온 평불협이 12돌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북동에 통일법당과 사무실을 열고 아래와 같이 개원 및 기념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 ◇ 아래 ◇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3월 3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성북동 통일법당 (삼선교 하차)

### 통일법당 본존불 복장물 보시 받습니다

- 복장재료 : 금판 2돈 (15만원) 이상  
통일법당에서 주문제작(직접 제작하여 가져오셔도 됨)
- 새길내용 : 가족성명, 주소, 가족축원 또는 단체발원
- 접수기간 : 불기 2548년(2004년) 2월 28일까지



(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북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후원회

평불협사무국 (代) 전화 : 1544-0408 전송 : 02)741-9347